

“부산연등축제 시민과 함께”

부산코모도호텔서 봉축결성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가 3월 26일 부산연등축제를 알리는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장 수불 스님 이 연등축제 기획위원들에게 수여하는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스님)는 2013년도 부산연등축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봉축결성법회를 개최했다. 3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고문 통합선교종 중정 정각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김석조 부산시의회의장 등 시민불자 500여명이 함께 했다.

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대회사에서 “한국전쟁 정전60주년, 부산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부산연등축제가 불자는 물론 부산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바람 나는 연등축제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 27일 부산역광장서 봉축점등식
5월 7일~12일까지 부산여등문화제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어두운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밝히는 연등축제의 취지를 잘 살려 부산불교가 시민들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대회장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는 “대동화합의 부산연등축제를 만들고, 부산 발전과 부산불교 흥흥에 이바지 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문을 낭독했다.

2013부산연등축제는 ‘세상에 희망을 마

음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2013년 4월 27~5월17일까지 부산시내 전역에서 개최된다.

봉축기간동안 축제의 사전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간 동안 광복로에 대형 봉축탑과 장엄물, 청사초종을 설치한다. 4월 27일 부산역광장에서 봉축점등식, 5월 7일~12일까지 용두산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부산여등문화제에는 전통등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연꽃문화제, 제6회 B-Boy 경연대회, 자비의 무차만발공양, 호국영산대제, 대북 난타와 전통국악 한마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다.

특히, 행사의 피날레가 될 5월11일에는 구덕운동장에서 봉축대법회, 구덕운동장-대청로를 잇는 제등행진, 대청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동화합마당이 진행된다. 제등행진은 브리짓 삼바축제와 같이 장엄등과 복식을 갖춘 연희단과 함께 행진해 부산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반행진군은 사찰,단체 구분없이 자유롭게 함께 어울려 행진한다. 제등행진이 끝나는 대청로에서 대청로 600M구간 5차선 전차로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대동화합마당이 진행된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자비의 동전상기’가 제등행진 출발장소인 구덕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사용된 동전은 제3세계 국가와 소외계층에게 후원할 예정이다. ‘아마추어사진 공모전’도 개최된다. 사진공모전은 2013부산연등축제 전과정을 촬영하여 축제홈페이지(bb48.or.kr)에 올리면 된다. **박경주 부산지사장**

삼대화상 기리는 문화축제 열린다

회암사, 4월 27일 삼대화상문화제

지공화상, 나옹화상, 무학대사가 수행했던 사찰로 알려진 양주 회암사(주지 혜성 스님)가 4월27일 ‘삼대화상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대화상의 수행 도량인 회암사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삼대화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했다.

회암사는 “지공화상, 나옹화상, 무학대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 3대 화상으로 존경받았던 스님이다. 스님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암사지박물관 특별무대와 회암사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회암사에는 나옹화상의 행적을 새

긴 회암사지선각양사비, 지공화상 부도 및 석등, 무학대사홍용탑 등 관련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

회암사는 문화제 메인 행사인 전통다례재를 비롯 △회암사 문화재를 탐방하는 ‘회암사 문화재를 찾아라’ △다도시연 및 시음회 △사찰음식 체험 △연등 만들기 △탁본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삼대화상 장학금 및 자비의 쌀 전달식, 지역 노인 진료 등 자비나눔도 진행된다.

음악예술제 또한 주목된다. 클래식과 현대음악, 전통과 종교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예술제에는 양주시립합창단과 회암사연합창단, 범고시연과 퓨전국악그룹 ‘락음악극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정혜숙 기자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

거창군살의쉼터(관장 은산)는 3월 20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거창군수 및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등 114여 명이 참석했다.

관장 은산 스님은 “평가원이 시행한 2012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대상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

정되었다”며 “이번 일자리 사업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운 스님(경남남부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자연 해치는 불사 이제 그만

최근에 여러 사찰에서 그 절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매력요소를 도입하여 다른 사찰과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구절초를 절 주변의 산에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꽃차까지 만들어 마실거리까지 풍성하도록 만든 사찰, 절 주변의 산에 부처님교화공원을 만들면서 철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도록 하여 이곳을 찾는 불자들에게 꽃보시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사찰, 절 주변의 밭에 연지를 만들어 연꽃의 아름다움과 진한 연향을 선물하는 사찰, 비료를 주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불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사찰, 절 주변에 찾아오는 철새들의 신비로운 생태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든 사찰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사찰이 불법승 삼보를 모시고 수행과 기도와 재를 올리는 사찰 고유의 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인들의 취향에 가깝게 다가가기려는 시도는 벌써부터 있어 왔다.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매력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자들이 스스로 사찰에 찾아오게 만드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생활불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는 작업이며, 훌륭한 포교의 방법이 된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마실거리, 쉴 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요소를 과도하게 도입하여 사찰이 가진 자연성을 해지

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산이 가진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성을 훼손하기도 하고, 연지를 만들면서 연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지나치게 많은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연꽃의 아름다움보다는 목재데크의 인공성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며, 철새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시설을 도입한 결과 철새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자연은 나름대로의 질서와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이러한 생태환경에 인간의 손길이 닿게 되면 자연이 지닌 본래의 질서가 무너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의 사찰에서 자연성을 훼손하는 불사를 한다는 것은 불교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팽개쳐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에 새로운 매력요소를 창출하는 것은 현대불교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연성을 해치는 불사는 경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과도한 인공시설물의 도입은 자연을 해치게 된다. 경기도 부사찰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 SET가격 300,000원

사치원운명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靑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SET가격 300,000원

화제의 신간!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은혜사서 개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장면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3월 28일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렸다. 주지협의회는 회의에서 최근 중앙총회를 통과한 ‘법인법’과 ‘승적 특별대책법’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구 본사간 화합을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군중 특별교구를 포함한 전국 25개 교구 본사 주지 스님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불총 정기 이사회 관등놀이 등 사업 확정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불총은 3월 27일 문화웨딩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불총은 5월 9일~11일까지 전통등을 주제로 한 시민축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를 개최하고 10월에는 ‘환경연합 대법회’를 열어 환경보존 운동에 대한 시민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